

제조업 시설투자 2.8% 감소

92년 이후 최저수준 ... 섬유 · 조선 · 전자 큰폭 줄어

97년 국내 주요기업들의 시설투자율은 96년에 비해 2.6% 증가에 그친 45조8512억원으로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전경련이 제조업 및 비제조업 매출액 순위 500대기업을 조사해 발표한 「97년도 기업시설투자동향」에 따르면, 97년 중화학공업부문의 투자위축(96년대비 3.5% 감소)으로 인해 제조업의 시설투자가 96년 보다 2.8% 줄어들어 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, 전체산업의 시설투자는 96년대비 2.6%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.

500대기업의시설투자실적및계획

구 분	1996		1997		증감률
	금 액	구성비	금 액	구성비	
전산업	447 080	100.0	458 512	100.0	2.56
제조업	332 939	74.5	323 623	70.6	▽2.80
중화학공업	312 208	69.8	301 294	65.7	▽3.50
경 공 업	20 731	4.6	22 329	4.9	7.71
비제조업	114 141	25.5	134 889	29.4	18.18

* 해외투자는제외

업종별로는 정유(38.1% 감소), 섬유 및 의복(35.6% 감소), 조선(22.9% 감소), 전기 및 전자(9.8% 감소)의 투자 부진이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.

투자동기별로는 기존시설 확장투자(2.1% 감소)는 줄어드는 반면 사업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타업종 진출투자(127.4% 증가)와 연구개발투자(33.4% 증가)는 활기를 띠 전망이다.

또 물류시설(33.0% 증가), 에너지 절약(33.5% 증가), 공해방지(45.5% 증가) 투자는 대폭 증

가할 것으로 나타나 기업이 불황 극복을 위해 질적인 투자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활동으로 합리화 투자의 확대(응답률 33%)와 채산성 없는 사업의 축소조정(14%), 업종전환 · 다각화(14%) 등 사업의 구조조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<화학저널 1997/4/14>